

옛 나주극장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내년 문 연다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관계자와 설계 방향·일정 확정

방치된 유휴시설, 문화예술공간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 추진

1930년대 들어선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옛 나주극장'이 원도심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최근 건축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보고회에선 안상현 부시장과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잠정 확정했다.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은 방치된 유휴시

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극장 내부에 기록물 전시장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전시장, 식·음료(F&B) 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올해 건축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적 레노베이션(보수) 작업을 끝마치면 나빌레라 문화센터와 함께 원도심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옛 나주극장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나주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과 잠사공장 등 근대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극장 안은 2층 구조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나주극장은 그동안 부침이 많았다. 1980년대까지 영화 상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인근 광주에 소재한 대형 극장 등에 밀려 문을 닫아야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사업자가 건물 전면부를 일부 개조해 음식점으로 운영하다 폐업 후 방치됐었다. 이를 나주시가 매입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1930년대 들어선 나주 지역 최초 극장인 '옛 나주극장'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1990년대 이후 식당 영업을 위해 전면부가 일부 개조된 나주극장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곡성 '나홀로 거주 청년 월세' 최대 연 120만원 지원

곡성 '나홀로 거주 청년 월세' 최대 연 120만원 지원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곡성군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주거비를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원,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 이번 사업 대상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며 29일부터 모집한다.

곡성지역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34만2668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1년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한 청년도 신청

곡성=양혜영기자

이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 선정자, 유사 주거 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 주택 소유자,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곡성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과 불법엽구 합동 수거

화순군은 지난 24일 화순읍 아성리 일원에서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주최한 2024년 겨울철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합동 수거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불법 엽구 수거행사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화순군, 화순군 기동포획단, 지역주민 등 약 30명이 불법 엽구 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울무, 땃 등을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환경과(379-3595)로 신고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담양시장 1층 상가 입주상인 추가 모집

1층 상설시장 28개 점포(공산품, 농·수산물, 즉석식품) 우선 선정

담양군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담양시장 재건축공사 준공이 내년 3~4월로 예정됨에 따라 1층 상설시장 점포 구성을 위한 입주상인을 1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상설 운영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담양군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 등이다. 또한, 운영 조건으로는 내부 시설 일부 사용자 부담 설치,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납부, 사용 허가 기간 3년, 임대료 산정기준 등이 있다.

현재 옥상을 활용하는 옥상정원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는 담양시장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를 1층에 배치하고 2~3층은 식당과 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상가 모집을 통해 인근 죽녹원, 국수의 거리, 담주 예술구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



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https://www.dam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담양군청 경제교통과(☎061-380-31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담양만의 특화된 상업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새해 '소통 행보' 주목... 군정 발전 밑거름

김한중 장성군수가 연초부터 폭넓은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5~12일 11개 읍면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가진 데 이어, 22일부터는 군 공직자들과 부서별 차담을 진행 중이다.

김 군수는 5일 남면을 시작으로 12일 북하면까지 11개 읍면을 찾아 군민 1500여 명과 환담을 나누고 의견을 청취했다. 접수된 안건은 △농로 및 도로 확포장 △용배수로 개선 △마을안길 정비 △주차공간 확보 △마을 도시가스 설치 등 생활 환경 및 편의성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인구유입정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해당 부서에 즉각 배정했다. 장성군은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 여부와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건 처리 과정은 주민과 공유하고, 처리 상황을 관리카드로 작성해 분기별로 관리하게 된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주민 보건교육 실시

7개면 33개소 경로당 어르신 대상

구례군은 1월 15일부터 7개면 33개소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내 체조 및 통합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겨울철에 어르신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군은 경로당을 방문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건 등을 활용한 실내체조와 스트레칭,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9대 수칙, 영양, 금연, 절주 등 종합적인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119 신고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	